

6.

영사 서비스 확충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38

제2절 해외진출 우리국민 편익 증진 250

제3절 대국민 소통강화 256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1.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내실화

연간 출국자가 1,300만명에 달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반경이 확대되면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외국민 보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통한 사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및 운영 △해외안전여행 여행 성수기 대비 집중광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파를 집중 실시하였다.

1)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

(1)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건·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해외여행객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YTN에서 ‘해외안전여행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정보를 제공하였고, 전국 103개 전광판, 공항 리무진·공항행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여권발급 지자체·여행사·항공사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보딩패스에 홍보문구 삽입, 기내지 및 기내 영상광고 등 해외여행자의 출국 동선을 고려한 출국단계별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왔다.

(2)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단체보다는 개별여행 수요가 많고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층에게 특화된 안전여행정보를 집중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생 30명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홍보단)으로 위촉,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전파토록 하였다.

대학생들은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운영 △배낭여행객을 겨냥한 안전여행 UCC 제작 △안전여행 CM송 제작 △여행박람회에서 안전여행 퀴즈 이벤트 실시 △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 ‘안전여행헌장’ 서명 받기 등을 통해 국제교류처에서 친구들의 서명 받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3) 여행경보제도

외교통상부는 해외 각국(지역)의 위험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여행경보는 해외여행객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와 위험수준을 전달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2010년에는 여행경보를 많은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행경보단계 조정시 공문을 통해 10여개의 유관 민간단체(여행업계·선교단체·NGO 등)와 관계부처에 즉각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행경보단계 ● 1단계 여행유의 ● 2단계 여행자제 ● 3단계 여행제한 ● 4단계 여행금지	해외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신변안전 특별유의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즉시 대피·철수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방문금지
	여행경보제도		

(4) 여행금지제도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 우리 국민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를 방문할 경우, 외교통상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라크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기간을 6개월씩 연장('11.2.7-'11.8.6)하고, 아프간·소말리아에

대해서는 1년간('10.8.7~'11.8.6) 여행금지를 재연장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진출 기업 활동이 증가하고, 테러가 빈발함에 따라 아프간 방문 신청자에 대한 여권사용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2)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

(1) 신속대응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전문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안정적인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남아공에 파견하여 남아공 월드컵 기간중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상주시키고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여권, 해외이주 등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22만여 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국능률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중앙정부 콜센터 가운데 1위로 선정되어 '한국의 우수 콜센터' 인증을 받았다.

(3) 영사협력원

외교통상부는 2007년 3월부터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1월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현지 영사협력원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최초로 파악·보고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을 점검하는데 기여하였다.

(4)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본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하

고 있다. 2010년에는 △중남미(2월) △아프리카(3월)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CIS(8월) △서남아태평양(9월) △유럽(12월) △중국(12월)에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였다.

(5) 신속해외송금지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3천 미불 한도)하는 제도이다. 시행 이래 총 1,308건으로 총 15.6억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에는 405건 총 5억8천여만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6) 긴급구난활동비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의 사고수습과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0년 아이티 강진('10.1월)이 발생했을 때 1만 미불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키르기즈(오쉬지역) 재외국민 철수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 긴급구난 활동비 7,500여만원과 해외재난 긴급구호 물품지원 2,600여만원을 집행하였다.

2. 2010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1) 개관

2010년 한 해 동안 5,232명(범죄피해 3,780명 / 범죄가해 1,452명)의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 이는 작년 5,281명(범죄피해 3,572명 / 범죄가해 1,709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2010년 출국자수(1,280만명)가 전년도(980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예방적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데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사건·사고는 가해와 피해 모두 아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우리 국민 피살자 60명 중 36명(60%)이 아시아에서 살해되었다. 또한, 납치·감금된 121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86명(71%)이 중국에서 피해를 당했으며, 이는 대부분 채권채무를 둘러싼 다툼에 따른 것이었다.

2) 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1)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삼호드림호)

2010년 4월 4일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삼호드림호는 마셜군도 선적(船籍)의 30만톤급(적재톤수) 원유 운반선으로, 우리 국민 5명 외 필리핀인 19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삼호드림호 피랍 대책본부(본부장 :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설치, 주케냐대사관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선사 및 유관부처와의 상시 협조체제, 24시간 상황전파체계 구축하였다.

정부는 '해적단체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되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피랍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납치단체-선사간의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다. 삼호드림호는 피랍 216일만에 선사측과 해적측의 협상이 타결되어 11월 7일 선원 전원 이 석방되었으며 청해부대가 삼호드림호를 안전지대인 오만으로 안전하게 호송하였다.

(2) 아이티 지진 등 자연재해

2010년 1월 13일,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20여만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외교통상부는 지진발생 직후, 본부 사건대책본부와 주도미니카대사관 현지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아이티에는 대한민국 공관이 상주하지 않아 우선 현지 영사협력원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현황을 1차로 점검하였다. 아이티 인근국인 주도미니카대사관 직원이 육로로 아이티를 직접 방문하여 아이티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70여명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이티 현지 치안사정 악화와 여진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1월 14일부로 아이티의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황조정하고 비필수 인원의 철수를 권고하였다. 1월 25일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 우리 국민에게 1만 미불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아이티 강진 대응은 공관 미상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사협력원의 효용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러시아 유학생 피습사건

2월 15일 시베리아 알타이주에서 '강' 모씨가 괴한들에게 피습·사망하였으며, 3월 7일 모스크바에서는 '심' 모씨가 거리에서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은 사태와 관련, 본부와 공관은 주한 러시아대사 및 러시아 관계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피해자 측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였다. 이어 한·러 양국 차관간 전략대화(3.29) 및 영사국장 회의(3.29) 개최 계기에 러시아측에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과 재발방지책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예방키 위해 러시아에 대해 여행정보 1단계를 신규지정(3.11-5.31)하고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교민 안전대책반'을 가동했으며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 키르기스스탄 민족분쟁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 및 발랄아바다 지역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민족간 분쟁이 발생해 약 100여명의 사상자 및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오쉬주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85명 중 74명을 수도 비슈켈으로 신속하게 소개하였다. 주키르기스대사관은 오쉬 연결 도로망 봉쇄를 감안하여 6월 13일 전체 항공편을 확보하고 키르기스 정부측에 오쉬 시내-공항 이동시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철수 대상 국민들을 교민 주택 3곳에 집결시키고, 임차한 버스 2

대로 오쉬 공항으로 단체 이동토록 조치하였다.

이는 전세항공기 임차를 통해 분쟁지역 체류 국민을 신속히 철수시키고 우리 국민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재외동포 권익 증진

1) 재외선거제도 도입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우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은 제17대 국회 논의를 거쳐 제18대 국회에서 본격화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9년 1월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29일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재외국민 선거권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재외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홍보와 공관별 실태조사를 위해 재외선거홍보 및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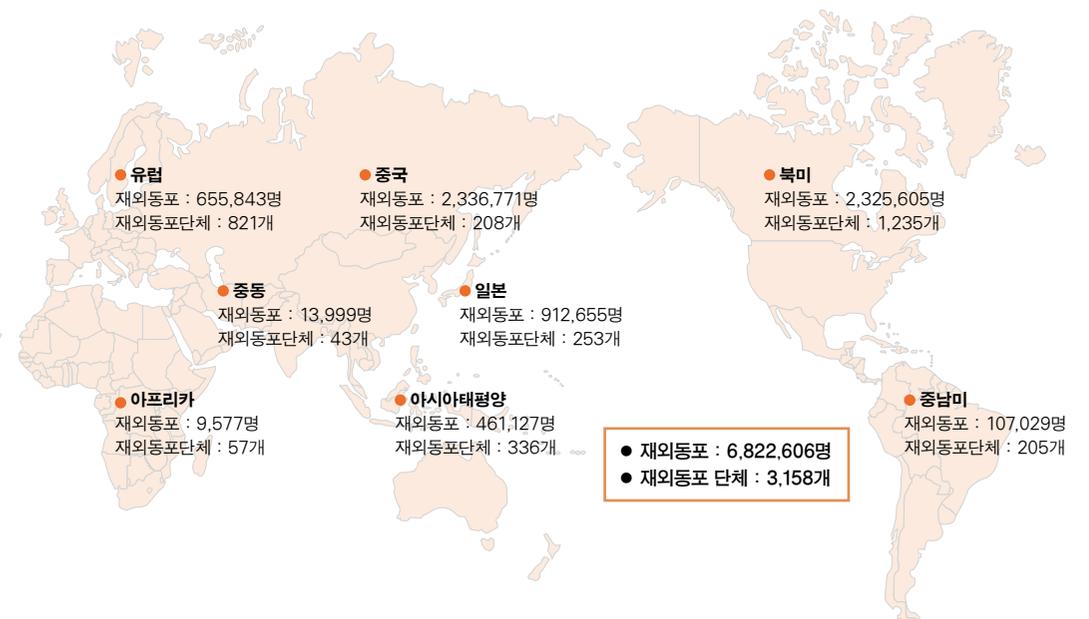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2010년 11월에는 실제 재외국민 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모의재외선거를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실시하였다. 정부는 재외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는

재외선거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주재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 동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등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2004년 11월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연 1회 및 실무위원회 연 2회 이상 정례 개최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정책위원회와 18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제17차 실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재외선거 준비 및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18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한글교육 지원 강화 방안뿐 아니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문제 등 재외동포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업무 조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및 단체현황 (동포현황 09년, 단체현황 10년 기준)





제4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재외동포유공자 훈·포상(10.10.5)

3)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은 그간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 건의를 반영, 2007년 5월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7백만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 한인의 날'은 2007년부터 공식 기념식,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어울림한마당 행사, 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랑스런 세계 한인」의 구호 아래 개최된 2010년 제4회 한인의 날에는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 1,200여명이 참석하여 공식 기념식,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이외에 재외동포 애국애족 온라인 사진전, 재외동포 및 국내 음악인이 함께한 코리안페스티벌 등 풍성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 한인의 날을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4) 고려인 재정착 지원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전역에 53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및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성향 대두, 경제악화 등으로 약 5만여 명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여타 CIS지역으로 이동,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어교육기회 확대, 동포학생 유학지원 및 초청연수확대,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 현지 재외동포의 국내취업기회확대, 현지 정착 활동 지원을 5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관련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0년까지 900여명이 체류자격 합법화를 달성하였으며, 여타 CIS 지역

에서도 관련사업을 진행 및 계획중이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차원에서 농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 농업 교육장 건립을 지원하고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려인동포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확보된 바, 기존 사업 실시결과 및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5)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국·CIS지역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관리제(2002년 12월) 및 특례고용허가제(2004년 8월)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어서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도 모국을 방문·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취업제를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방문취업제는 동포들에게 최장 5년간 한국체류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동포 지원정책으로서, 동포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 모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재외동포사회 지원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1)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지원 사업

- 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 모국어 교육사업, 모국문화 보급사업, 차세대 육성사업
-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 지위 향상 및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 역량결집사업, 한상활성화 사업
- 동포사회 조사·협력 강화 : 조사연구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홍보(정보화) 사업

(2) 재외동포사회 지원 주요성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세계 한인회장을 초청, 국내·외 동포 간,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인회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무대이다. 2010년으로 11주년을 맞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76개국 380명의 한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통령을 대리한 대통령실장의 개회식 참석과 정부 부처 및 각급 기관의 주요 인사가 적극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 강연회,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GKN)구축사업 설명회 및 정당별 재외동포정책 등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프로그램, 지역별 현안토론 및 전체회의 등 쌍방향 소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제9차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

제9차 세계한상대회는 2010년 10월 총 43개국 3,275명(국내 2,300명, 해외 9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중 운영된 기업전시회에는 총 42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452개 부스가 설치되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리딩CEO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에는 차세대 한상이 역대 최대 참가하여, 한상 네트워크의 확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 2,068건, 2억 5천 6백만 달러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고, 총 27건의 MOU 체결 및 자매결연을 통해 국내 외 경제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유관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다.

2010 Korean Festival

코리안페스티벌은 2007년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음악과 예술을 통한 내외 동포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9년 서울예술제를 모태로 하여 다양한 장르의 동포예술인을 초청, 국내관객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그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코리안페스티벌은 KBS공개홀에서 고려인·조선족 3세 등 한국인의 뿌리를 가

진, 양방언(일본), 아니타최(러시아), 김해심(중국), 정진희·성경선(아르헨티나), 대니정(미국) 등 5개국 6명의 유명 재외동포 음악인들과 패티김, 인순이, 제국의아이들 등 국내 정상급 음악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뜻있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TV 특집방송(KBS1 TV, KBS월드, 65개국 해외방송망)을 편성하여 해외거주 동포들에게도 감동을 전하며 뜻깊은 문화예술 축제의 의미를 한층 심화하였다.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2년까지 전 세계 한민족을 온라인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포괄하는 사이버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출범하였다.

2010년에는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여, 6월에는 전세계 한상들이 교류하고 한상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장(場)인 '한상넷(www.hansang.net)'을 개설하고, 재외동포재단 내에 세계한상정보센터를 발족, 온·오프라인 한상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코리안넷을 개편하여 콘텐츠를 확대하였으며, 우리말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개 외국어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서비스 이용 편익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코리안넷을 통한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DB) 조회서비스를 개시하여 재외동포간 네트워킹을 촉진하였다.

제2절

해외진출 우리국민 편익 증진

1. 외국과 사증면제 및 간소화 확대 추진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추진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진출 및 편리한 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세계 각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완료(2011.02.14. 현재, 90개국)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10년 우리부는 볼리비아(2010.08.25.), 키르기스공화국(2010.11.30), 미얀마(2010.12.30)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들 및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사증간소화 확대 추진

외교통상부는 사증면제협정 이외에도 사증간소화, 복수사증발급 및 사증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진출 및 편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년에는 특히 한·러 양국간 상대국 내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들을 대폭 개선하는 ‘한·러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확대

1)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외교통상부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체결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며, 기존 협정체결국과는 참가배정인원(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3.9)되었고,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과 신규 협정을 체결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등 주요국들과도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협정체결국인 일본과는 현재 연간 7,200명인 쿼터를 2012년부터 1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협정체결 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결일시	95.3	96.1	99.4	99.4	08.10	09.4	09.12	10.9	10.10	10.11	10.11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연간쿼터	무제한	4,020	1,800	7,2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200	400

※ 협정 체결 추진중인 국가 : 영국,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등

앞으로 우리 국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2009년도부터 워킹홀리데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 해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15회 실시했다. 사전설명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취업 정보 및 어학연수 조건 관련 최근 현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차고 보람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체험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웹사이트(<http://www.whic.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직접 글을 올려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 www.twitter.com/iworkingholiday 페이스북: www.facebook.com/whickorea



시드니 워킹홀리데이서포팅센터 전경

재외공관에서도 참가자들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주시드니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워킹홀리데이서포팅센터(워홀러 지원 NGO), 한인회, 한인변호사회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망을 개설하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지원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토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시드니총영사관의 후원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종합 정보 홈페이지(<http://www.woholer.org.au>)도 개설하여 우리 워홀러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등 외국인 참가자 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수 총 443명에 비해 2010년에는 700명으로 약 60%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참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설명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신규 협정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인 대상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 브로셔



독일인 대상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 브로셔

3.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1) 순회영사활동 강화

재외공관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영사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등록, 여권 발급 신청 접수, 각종 공증 업무 등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순회영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외교통상부는 2005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2006년부터 만족도 조사 대상 공관을 확대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는 설문 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영사업무 수행 소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사서비스 개선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영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영사활동 성과 평가 지침 제정 및 시행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영사활동의 종합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영사활동 성과평가는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의 영사업무를 강조하여 영사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

1) 영사민원 시스템(e-Consul)구축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전산망과 행정부처 전산망을 연계한 e-Consul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기록, 신원조회, 운전면허기록 등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1주일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2) 재외공관 민원실 운영

외교통상부는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외공관에 민원실을 설치하고, 전 재외공관 민원실에 영사·민원 개선함을 설치하여 불평·불만 사항 및 개선 건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민원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우송, 교민 모임 활용,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영사민원서비스현장」 및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5. 영사·민원 관련 정보 제공

1)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개설

외교통상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 사건·사고, 해외여행, 영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안전 정보, 안전 뉴스, 여행 경보 공지, 여권 정보, 영사 확인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안전상황에 따라, 84개국(1단계 42개국, 2단계 41개국, 3단계 27개국, 4단계 3개국)에 대해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고 있다(2011년 2월 기준).

2) 방송 등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홍보¹⁾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에서의 안전 확보 문제가 중요해졌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송, 팸플릿, 포스터, 책자 등으로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26개국이다. 2010년 12월에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메릴랜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1)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제3절

대국민 소통강화

1. 개관

외교통상부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주요 외교 사안을 신속히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국민 접촉활동, 각종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2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대국민 소통방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

외교통상부는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을 활용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0년 새로이 국·영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영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개편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지역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전세계 국가·지역 정보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사이트 「m.외교통상부」를 정부 주요 부처 중 최초로 개설하였다.



외교통상부 트위터와 페이스북



외교통상부 블로그 기자단

이 외에도 주요 외교사안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 블로그 '외교나래'를 운영 중이며 정책고객들에게 정책메일과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블로그·카페 부문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강화하여 정상외교 등을 보다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3. 대국민 접촉활동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외교통상부는 견학 프로그램, 지방 중·고교 방문 강연, 어린이날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직접 접촉활동(Public Outreach)을 활발히 하였다.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2-3회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외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코자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있는 자문대사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하는 지방고교 방문 프로그램을 서울까지 확대 실시하여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의 장을 확대하였다.

4. 홍보물 제작

외교통상부는 2010년 10월 외교관을 소재로 하여 KBS 「인간극장」(5부작 다큐멘터리)을 공동 제작하여 외교관의 업무와 생활을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용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외교관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아울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외교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 업무 내용을 재미 있는 만화의 형태로 풀어 설명한 웹툰을 총 9편 제작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재하였으며, 이는 100만명 이상 열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KBS 인간극장 「완중씨의 페루 외교 일지」

5. 기획 홍보

외교통상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개최하였다. 전국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참전비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주한 대사 인터뷰, 대사관 기고, 참전비 방문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기념책자를 발간하였다. 기념책자 역시 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판물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6.25 60주년 기념 홍보사업

2010년 대국민 소통 강화 활동 내용

구분	매체(수단)	주요활동
대국민 접촉 활동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사이트(m.외교통상부) 개설(2010.1) 국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2010.5) 국가·지역정보 사이트 개설(2010.7)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문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개설(2010.7/10) 주요 외교정책 설명, 해외안전여행 정보 및 주요 행사 실시간 게재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블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외교 행사, 국제이슈, 세계 각국 문화 등에 대해 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쉽게 설명 외교통상부 직원 및 대학생 기자단 공동 참여 일평균 방문자 수 약 2천명
	뉴스레터/정책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38회, 정책메일 56회 발송 외교정책 홍보 관련 정책고객 설문조사(2010.12)
	온라인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퀴즈 이벤트(15회)를 확대 개최 정상외교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
홍보물 제작	홍보리플릿/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통상부 청소년용 홍보리플릿 제작(2010.6) 홍보 동영상 제작(2010.9)
	홍보웹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 홍보 웹툰 9편 제작 및 네이버 게재(2010.12) 외교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 100만명 이상 열람
	KBS 「인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페루 김완중 공사참사관 소재 KBS 「인간극장」 방영 방영일시 : 2010.10.25-29 외교관의 업무 및 애환 소개
기획 홍보	6.25 60주년 기념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18명과 2010.6.25-7.1 전국 참전비 순례 주한대사 인터뷰, 대사관 기고, 참전비 방문기 블로그 게재 및 기념글 모음집 발간